

삼비 데님 산지 오랜만에 완전 가동 상태

일본 혼슈(本州) 서부의 세도나이카이(瀬戸内海)를 향하고 있는 오카야마(岡山縣) 삼비(三備는 비젠 備前, 빗쭈 備中, 빙고 備後)산지의 주요 생산품인 데님, 캐주얼 소재들은 금년(2002년) 2월부터 상거래가 활발해 졌다.

이 산지의 데님 제직업자와 상사(商社)들의 말에 의하면 지난 1월까지의 봄 상품의 움직임이 잠잠하여 늦는 듯 하였는데, 2월에 들어서면서 종합 어패럴 메이커의 캐주얼 부문이나 영·캐주얼을 전문으로 하는 어패럴 메이커, 진즈·메이커의 레이디스 부문, SPA(제조 소매업) 등으로부터의 주문이 들어 오기 시작하였다. 특히 외상거래를 잘 하는 데님 제직업자가 많은 빗쭈지구(備中地區)에서는 직기 전부가 완전 가동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만 규모가 큰 진즈·메이커의 남자용 베이식·데님만은 다른 상품에 비하면 아직 주문이 활발한 것 같지가 않다.

주문 내용을 살펴보면 천이 질긴 2/1 능직의 데님·히코리(denim hickory)의 주문이 많으며, 이와 유사한 줄무늬 히코리(hickory stripes)도 잘 나가고, 지금까지 잠잠하기만 하던, 멜란지(melange)의 일종이라고도 할 수 있는 20 40수 정도의 얇은 색 한 가지의 경사에 흰 위사로 합계 밀도가 90 150올 정도 되게 짜는 샴브레이(chambray)도 이번 성수기에는 활기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또한 무늬 직물, 체크 무늬 등도 그런 대로 상담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도쿄 시장의 어패럴은, 손이 많이 가는 중고품을 품기는 워셔가공 원단의 상담이 많으며, 판로는 다양하게 금년에는 진즈 전문 메이커보다는 일반 어패럴·메이커나 도쿄의 캐주얼·메이커들이, 변화시킨 데님을 많이 거래하고 있는 것 같다.